

'천원' '오전 11시' 기억하세요

'천원 공연' '오전 11시 콘서트' 트렌드로...광주, 흥보·프로그램 빈약 아쉬워

'천원과 오전 11시.' 요즘 공연 트렌드를 보여주는 키워드다. 대체로 공연을 1천원에 볼 수 있는 '천원' 관련 행사는 서울을 비롯, 중소도시까지 확산된 상태. '11시'로 대표되는 오전 공연 역시 다양한 이름으로 전국에서 진행 중이다.

광주에서도 '천원의 낭만'과 '광주시향과 함께 하는 화요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흥보 부족 등으로 다소 지지부진해 아쉬움이 든다.

▲서울-천안 등 전국에서 인기 '11시 공연'의 출발은 예술의 전당의 '11시 콘서트'다. 이후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 콘서트', 창원 성산아트홀의 '모닝콘서트', 김해문화의전당의 '아침에 콘서트' 등이 생기면서 공연계의 큰 흐름을 형성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해설과 연주가 곁들여지는 음악회로 일부는 간단한 먹을 거리를 제공한다.

'천원 공연'은 세종문화회관의 '천원의 행복'에서 시작됐다. 서울 KT 아트홀의 '천원 공연'에 이어 올해는 천안에서 '천원의 콘서트'가 새롭게

출발했다. ▲광주의 '천원의 낭만'과 '화요음악회' '천원의 낭만'은 광주시와 (사)광주국제공연예술제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첫발을 댄 '천원의 낭만'은 지금까지 10차례 행사가 열렸으며 올해부터 시가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의 11시 공연은 '광주시향과 함께 하는 화요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0차례 열렸다.

대부분의 11시 음악회가 유료(5천원~2만원)로 진행되는 데 반해 화요음악회는 무료 공연으로 진행된다.

두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공연 개최 사실을 '인지'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날짜를 정하고, 정해진 날짜에는 '꼭' 행사를 여는 게 급선무.

'천원의 낭만'은 진행 날짜가 중구난방이다. 반면 '천원의 행복'은 넷째주 목요일, '천원의 콘서트'는 셋째주 금요일 등 타 지역 공연은 날짜가 정해져 있다. 대전의 '아침에 콘서트'는 화요일 개최만 고정해 둔 대신 1년 스케줄을 공지한다.

프로그램을 미리 기획하고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천원의 행복'은 이미 올해 프로그램이 모두 나와 있는 상태. 광주 역시 1년 프로그램이 어렵다면 적어도 2~3개월 후의 프로그램은 미리 확정, 공연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도록 해야 한다.

'화요음악회'는 지난해 공연 횟수가 7회에 불과했고, 11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간 공백이 있어 아쉬움을 줬다. 또 매회 1천장씩 배부하는 팸플릿에도 다음 음악회의 내용을 안내하는 문구 등이 없어 홍보에 미흡했다.

그밖에 올해 두차례 진행된 '천원의 낭만'은 다소 식상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화요음악회 역시 단순한 연주회와 해설이 아닌, 체계적인 클래식 감상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시 모닝콘서트'를 진행중인 울산문화회관 관계자는 "관객들에게 항상 특정일 11시에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1년에 12차례 꼭 행사를 치른다"며 "콘서트가 스타 해설자 등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 2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공원 대동광장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 광주여성대회'.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성대회' 등 '3·8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 기념행사 다채

차별·빈곤 넘어 평등 세상 열자

오는 8일로 '3·8 세계여성의 날'이 100주년을 맞는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영향력도 커지고 있지만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 63% 수준으로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은 여전하다.

지역 여성단체들이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 여성대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여성, 차별과 빈곤을 넘어 평등 세상을 열자'라는 슬로건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표·안진)은 지난 2일 광주여성대회를 시작으로 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불교문화원에서 비정규직·장애 등 여성들

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인 '여성이야기 마당'을 연다.

이어 6일은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시청 비정규직 투쟁 1년 원적복직쟁취결의대회'를 전개한 뒤 8일은 서울 시청 앞에서 전국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여성축제'에 참가한다.

지역 여성단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여성의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반대, 선출직 공천 30% 여성 할당제, 성희롱·성매매 관련자 공천 배제 등을 정치권에 촉구하며 여성친화적 문화 확산,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 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100주년을 맞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지역 여성단체들이 힘을 모아 여성과 남성, 장애인, 이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더불어 사는 평등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여성의 날은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1857년과 1908년 3월 8일을 노동 조건 개선과 여성 지위향상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를 기념해 UN이 제정한 날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1985년 이후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천원의 낭만'과 '화요음악회'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연 날짜를 고정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지난해 열린 '천원의 낭만' 공연 모습.

"공연·마술이 단돈 천원" 광주신세계백화점 '1천원짜리 문화상품'

광주신세계백화점의 어린이 대상 '1천원짜리 문화상품'도 인기 상승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마술공연과 연극 공연은 1천이면 감상할 수 있다. 뮤지컬 '돈

키호테' '코믹 배로 마술사'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윤종규씨가 진행하는 첼솔로 만드는 세상(일요일 오후2시), 문영식씨가 진행하는 '생물도

감'(일요일 오전 11시), '어린이 마술사 되기'(매주 일요일 낮12시10분·재료비 3천원) 역시 천원짜리 문화상품이다. 문의 062-360-15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미술대전 일정 확정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2008년도 미술대전 일정을 확정하고, 출품작을 공모한다.

제21회 광주시 미술대전은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건축, 판화, 문인화, 디자인 등 9개 부문으로 나뉘어 작품을 접수받는다.

접수는 5월9일~10일까지 2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받으며, 5월 13일 심사를 거쳐 5월14일 결과를 발표한다. 문의 062-613-3460.

제44회전남도미술대전은 서예(서

각·서예전각포함), 사군자(문인화 포함), 한국화, 서양화, 조각디자인, 사진, 조각 등 9개 분야를 접수받는다. 접수는 6월16일부터. 발표는 6월30일, 시상은 7월24일이다. 문의 061-286-542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점·선·여백의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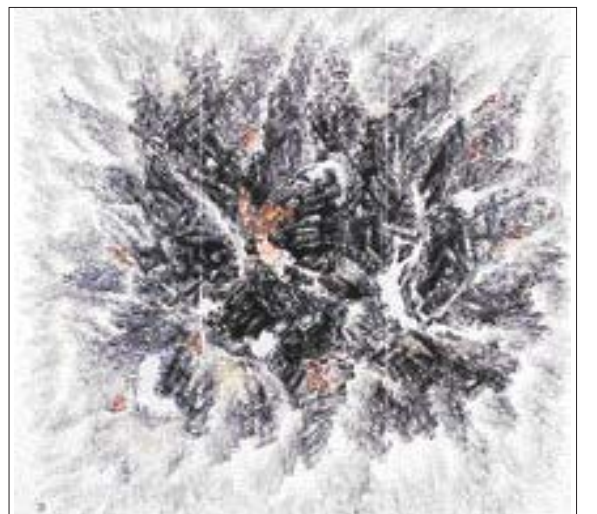
박문수·조광익·박도승 3인 초대전
6일부터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현란한 색상으로 대표되는 현대미술의 거센 물결 속에서 수묵이 주는 담백한 미와 여백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분관장 장경화)은 6~29일까지 이 지역 대표 수묵화가인 박문수, 조광익, 박도승씨의 초대전인 '자연 & 관조'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자연 & 관조'를 주제로 3명의 작가가 수묵의 전통적인 소재인 자연을 개성 강한 필선으로 표현한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실경산수를 그리고 있는 박문수씨는 나무와 길을 섬세하게 묘사한 '석관정 가는 길' 등을 내건다. 농묵과 담채를 적절하게 배분해 잔잔한 여운을 주는 작품들이다.

아산 조방원 문화에서 사사를 받은 조광익씨는 작고 섬세한 필선으로 표현한 '인왕면벽도'를, 연천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박도승씨는 '남도 이야기 하나'를 통해 기운 차게 뻗은 산자락을 화폭으로 옮겼다.



박도승 작 '남도 이야기 하나'

이번 전시는 전통회화에 대한 인식이 우리사회에서 점차 시들해져가고 있는 안타까움으로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해 조명하고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2006년 수묵화 3인 초대전 '물처럼 바람처럼'의 연장선에 위치한 후속 기획전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역사거리 ♥에메1544-0600

M관 추격자-디지털 (184)	최고등급
2관 추격자-디지털 (184)	
3관 점퍼 (154)	
4관 데스노트-새로운시작 (154)	
5관 바보 (124)	
6관 추격자(184)/콩푸덩크 (154)	
7관 랍보 (184)	
8관 스파이더워그의 비밀(전제)	
9관 밴티지포인트 (154)	

광주점 무료공개 행사 종료했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점퍼 (154)	
2관 어른먼트 (154)	
3관 바보 (124)	
4관 3.10투유마 (154)	
5관 밴티지포인트 (154)	
6관 주노 (124)	
7관 추격자 (184)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국내-옥외 주차장 300대 *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원도시영영화시영 • 에메: www.joyco.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척회관앞)

1관 데스노트 : 새로운시작 (124)	
2관 어른먼트 (154) / 스페이더워그의 비밀 (전제)	
3관 콩푸덩크 (154)	
4관 추격자 (184)	
5관 사랑보다 황금 (154)	
6관 바보 (124) / 점퍼 (154)	
7관 점퍼 (154)	
8관 워 (184)	
9관 랍보4-라스트블러드 (184)	
10관 밴티지포인트 (124)	

* 호남 최대 주차장 * 메입실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상영시간별 방문 (11시~21시) ~1인

색깔있는 영화선박 • www.cinusa.co.kr /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추격자 (184)	
1관 점퍼 (154)	
2관 밴티지 포인트 (154)	
3관 콩푸덩크 (154)	
4관 랍보4 - 라스트 블러드 (184)	
5관 어른먼트 (154)	
5관 데스노트 L (154)	
7관 바보 (124)	

* 매일실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편의사 할인혜택
• 세시녹차 사무니(모닝차-캐비넷)

ARS 전화예매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 www.mo12.co.kr / 1588-9101

무등극장

총장로 1가 ☎ 232-9106

1관 콩푸덩크 (154)	
2관 사랑보다 황금 (124)	
3관 바보 (124)	
4관 밴티지 포인트 (154)	
5관 추격자 (184)	
6관 랍보4 (184)	
7관 점퍼 (154)	
8관 데스노트 (154)	
9관 워 (184)	

* 리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메입실야 상영을 위한 전용구비면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새로운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

제일 시네마

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

1관 추격자 (184)	
2관 점퍼 (154)	
3관 데스노트 L (154)	
4관 바보 (124)	
5관 랍보4 (184)	
6관 콩푸덩크 (154)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